대담: 21세기 불교 왜 禪인가

"선의 생활화 창조적 삶의 원동력"

선(禪)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선수행은 구도자들의 수행에서 생활인의 일상적인 수행법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의 시대를 구가하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에 인류는 왜 선에 관심을 갖는가. 현대의 제문제들을 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21세기불교 왜 선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와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들어 본다.

박성배 교수

동국대 철학과 및 대학원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버클리대서 불교학 박사학위. 동국대 교수역임. 1969년 도미. 현재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 한국학과장. 동국대 석좌교수. 한국학시리즈 및 학술지〈한국사상〉편집장. 〈불교신앙과 돈오사상〉등 저서 논문 다수.

성본스님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 법주사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일본 구택(駒澤)대학에서 석·박사학위 취득. 중앙승가대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중국선종의 성립사〉〈선의 역사와 선사상〉등 논저 다수.

▲**박성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대란이란 말이 시시각각으로 실감나는 시기에 날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야말로 선수행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성본**: 선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래마음 자리를 들여다 봄으로 자기의 실상을 깨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은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몬순이라는 자연환경이 사유적 수행을 낳은 것이지요. 그러나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은 아니고 부처님의 사유와 같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선은 사성제와 12연기를 꿰뚫어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은 중국에서 완성된 조사선입니다.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고대의 사유법은 후대 규봉종밀이 말한 '오종선(五種禪)'에서의 외도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성배**: 그렇다면 조사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 주시지요.

▲**성본**: 〈육조단경〉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고 일체 경계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사상과 공의 실천이라는 사상적 완성이 단경이 말하는 좌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은 좌선 수행법이 일상의 생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마조의 역설은 선종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성배**: 선이란 스스로 체험을 하는데서 그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에서 선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조의 '평상심이 도'라는 말과 선의체험 중시사상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성본**: 사람마다 스스로 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선학이란 것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일뿐이고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을 밝혀 보는데서 향후 선이 인간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서구사상 한계 벗어나는 길 찾다 신선한 바람 禪을 만난 것이죠"
>
> - 박성배교수 -

'평상심 道'는 미래문명 이끌 정신적 寶庫
'나와 전체 하나' 확신하는 삶 인간성 회복

▲**박성배**: 현대인들이 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지금 꽉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물론이고 서양인을 지배했던 신중심의 정신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병은 늘어나고 사회악은 다양화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고 답답하게 된 것이죠. 그 답답함을 벗어날 길을 찾다가 만난 것이 선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신선한 바람을 만난 것이지요.

▲**성본**: 서구인들은 선을 상당히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과 일본의 선(ZEN)을 접하기도 하고 위빠사나 수행법을 따르기도 하고 요가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이라는 영역에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안이 그런 수행을 통해 극복된다는 것이겠습니다.

▲**박성배**: 종교적 세계에서의 구원이나 자각을 말할때는 그에대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개인의 자각의 실천이 확산되어 사회의 공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개인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성본**: 현대의 우기상황은 바로 그런 조직성을 보는데 있어 개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데서 출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있고 개인은 없다는 의식에서 개인의 인간성이 도외시 되어 버린 결과 인간의 절대적 존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인간 개인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박성배**: 따지고 보면, 개인이라는 것도 시간적으로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하는 성격에 걸리고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는 지역성에도 걸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개인은 지역성과 역사성 시간적 굴레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성본**: 숲만을 보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면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숲과 나무를 한꺼번에 보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선수행의 역할이고 과제가 아닐까요. 결국 인간의 존엄과 인간끼리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현대의 병폐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안, 환경의 문제, 지역간 계층간 종교간에 야기되는 갈등 구조들도 모두 숲과 나무를 한꺼번에 보는 힘, 다시말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선이 만병 통치약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잘 못 이해된 선은 오히려 더 큰 병을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배**: 개인의 자각은 각종의 사회적 관심사와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철저히"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서 더욱 새로워 지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 가르치는 '평상심'을 자각의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큰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성본**: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자각의 힘을 키워 내는 것, 정신세계에서의 평온과 자유가 밖으로 현전되어 사회조직 속의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때 과학이라든가 컴퓨터문화 정보화 사회로 치닫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래의 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와 선의 공존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오늘날의 컴퓨터는 디지털화된 기술의 발전 속에서 그 기능이 한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컴퓨터라는 것의 구조는 1과 2를 구별하는 2분법에서 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대되어가는 기능에 매몰되어 컴퓨터에 인간이 따라가는 꼴이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된 컴퓨터도 결국 '생명'의 문제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귀하디 귀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컴퓨터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리는 것은 가치전도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광고에서 아이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요, 과학과 기술로 안되는 것이 없고…"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믿음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름다운 인형이 잘 팔렸는데 요즘은 오줌을 누고 눈꼽이 끼는 기능을 지닌 인형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그런 인형이 잘 팔리고 그런 상품이 양산 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그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그리워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 상실의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본**: 인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곳에서 자연과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능성 개발과 하화중생의 보살도 구현을 위해 매진한다면 그런 사회가 바로 깨달음의 사회일 것입니다.

▲**박성배**: 개체로서의 나와 전체로서의 나는 결국 둘이 아닙니다. 그 둘이 아닌데 대한 확신을 얻는 것과 그 확신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된 선을 통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조사선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전개될 수 있느냐, 그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매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론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성본**: 일본의 다도(茶道)에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일기일회(一碁一會)'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한번의 기회가 오고 한번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매사를 창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추구하는 것 역시 일상사를 창조하며 사는 것, 매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자기"라는 말처럼 공간과 시간과 자기가 하나가된 삶, 몸과 마음이 일여(一如)한 삶, 자연과 사회와 내가 일체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선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박성배**: 그러나 지나치게 선이라야 한다는 당위성에 얽매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은 선이 아니다"는 귀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이어야 한다 것도 때로는 망상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는 진정한 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 "부처님의 선은 사성제와 12연기 꿰뚫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
> - 성본스님 -

정리=임연태 기자

法社團人 韓國佛教大圓會
理事長 朴鈗炘

상임이사 이지행
이사 권오현
이사 전찬규
이사 윤연
이사 이상준
이사 이원자
이사 임광배
이사 김용직
이사 고원규
이사 이상우
이사 김길성
이사 김학매
이사 배영옥
이사 배호구
이사 윤치환

감사 이강인
감사 문황진
감사 허성구
감사 손정애

상임법사 이지행
회장 김용직
부회장 배영순
부회장 한채광
부회장 임배성
부회장 신덕옥
부회장 오랑옥
부회장 심현녕
부회장 이호

●大圓法會●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30 ~ 12:30 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773-9171
FAX 756-7258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

재단법인 선학원

"민족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상무이사 성문

이사 범행·도의·성열·법진·상월
경희·자민·혜운·도형·동림
오원·성우·정수
감사 정관·법운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6 FAX 734-3410